“구속은 피하자” 불명예 무릅쓰고 직접 나서

전두환·노태우, 제도 없어 판사가 서면 심리…노무현, 서거로 수사 중단

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한국 헌정사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이 추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이 자리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도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피의자도 변호인을 대동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다. 사실상 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판사 홀로 5~6시간의 서면 심리만을 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면 서면 심리로 대체되는 만큼 애초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굳이 부담을 무릅쓰고 법원에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부한 점이 파면 이유로 꼽힌 사실을 고려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번에는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인 만큼 경호·경비방안 마련에 크게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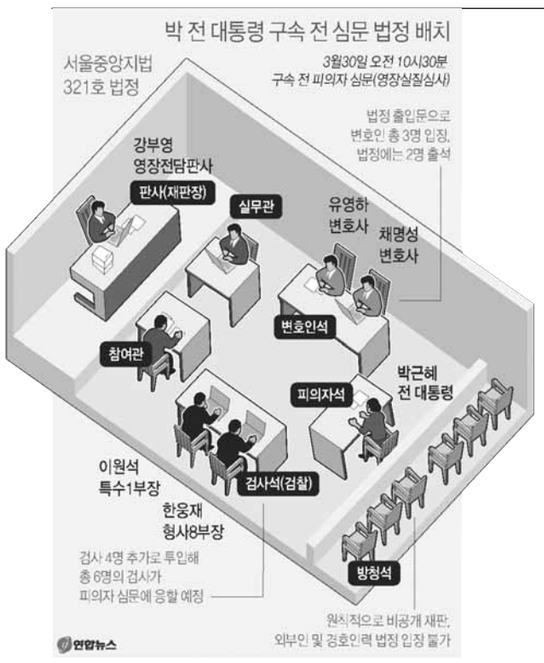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경호를 받으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최장 신기록’

삼성 이재용 ‘7시간 30분’ 넘어…오후 두 차례 휴정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오후 7시 30분까지 심문을 이어갔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점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심문 대화 내용

“피의자, 직업은?” “전직 대통령”

검사, 298억 뇌물수수 혐의 등 영장 청구 요지 설명

“피의자, 직업은 무엇인가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주소는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입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다.

법정 맨 앞쪽 판사석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개시를 알리며 ‘피의자 박근혜’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묻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이어졌다.

강 판사의 맞은 편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52년 2월 2일’, 직업은 ‘전 대통령’,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왼편 검사석에서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옆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 등 검사 5명이 더 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줄줄이 열거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어 영장 청구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기밀 서류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한 점’,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입을 맞출 가능성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큰 점’ 등도 강조됐다.

이에 검사석 맞은 편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라며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강 판사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인 데다 다툴 부분이 많다보니 심문은 장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영장심사 이모저모

긴장한 누나 배웅한 동생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30일 오전 10시 9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교통통제 속에 11분 뒤인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차 주변을 경호원이 에워싸고 박 전 대통령이 내리기 직전까지 주변을 살폈다. 경호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뒤에도 1~2미터 거리에서 둘러싼 채 취재진이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50여걸음 거리에 있는 법원 청사로 들어선 뒤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남색 정장에 구두를 신은 채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앞선 검찰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올림머리에 화장한 모습이었지만, 당시 미소를 지어 보인 것과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대기 중인 카메라와 취재진을 향해 눈길을 주거나 미소를 지어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로비에서 한 층 위에 있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9) EG 회장은 30일 오전 9시35분께 부인 서향희(43)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집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동행했다.

지만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이 떠난 뒤 약 10분 후 집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곧바로 동작구 현충원에 들러 오전 10시50분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에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지만씨의 만남은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만씨의 아들인 세현(12)군을 향한 애정이 각별한 박 전 대통령이지만 취임 이후에는 가깝게 지내던 지만씨 부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63)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가 오전 일찍 자택 인근에 나타나 집 근처를 배회했다.

신씨는 최근 경호원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거듭 부인했지만, 지만씨 부부와 달리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